

Maslow의 基本欲求가 衣服價值觀에 미치는 영향

姜 京 子 · 徐 英 淑*

慶尙大學校 自然大學 衣類學科 ·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家政教育科

The Effect of Maslow's Basic Needs on the Clothing Values among Adult Women

Kyung-Ja Kang* · Young-Sook Suh**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Natural Science, Gyeoung Sang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Teacher's College, Kyung Pook National University

(1988. 8. 11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basic needs and demographic variables of adult women upon clothing values. This study was designed with causal model regarding the demographic variables as independent variable: the basic need as intervening variable: the eight clothing values as dependent variabl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1. Age of women has a definite effect on marriage status, school career and income. Age has effect on marriage status in seven values except exploratory value. It has effect on school career in aesthetic and political values, and it has also effect on school career and income in social and religious values.

2. Age has no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 basic needs. Marriage status and school career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 basic needs. Marriage status has positive effect on the need for self-esteem in seven values except exploratory value. The need for self-esteem of unmarried women are stronger than that of married women.

School career has negative impact on the need for safety. The women having higher school career do not have strong need for safety in aesthetic and social values.

3. School career, income, needs for safety, belongingness, self-esteem and self-actualizing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clothing values. School career has positive effect on aesthetic and political values, and it has negative effect on religious values. Income has negative effect upon social and religious values.

Need for safety has negative effect on aesthetic values. Need for safety is positively related with need for belongnesses, and they have an effect on the social values. Need for self-esteem

has positive effect on the aesthetic and political values, and it has negative impact on theoretical, economic, social and religious values. Need for self-actualizing has positive effect on the theoretical values.

I. 서 론

衣食住란 人間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생활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수단들이기도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衣食住 특히 衣服의 특징은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이는 또한 그 사회의 문화와 개인의 價值觀을 반영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의복의 社會心理의인 측면을 중요시 하였으며 衣服이 개인의 사회환경적인 측면은 물론 개인의 심리적인 제요인까지도 표현해주는 단서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人間은 자신의 행동방향을 설정할때 경험에 근거하여 개인적인 습관이나 사회적인 規範, 관습등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理想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이와같이 인간의 행동은 본질적으로는 價值指向의이며 자신이 가지는 가치에 따라서 衣服에 대한 관심이나 태도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어떤 가치를 내면화한 상태에서 행하는 衣服行動은 欲求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의복행동은 欲求에 의해서 특징지워질수 있고 동시에 價值指向을 반영하게 된다¹⁾. Sumner²⁾나 Creekmore¹⁾등 일부 학자들은 欲求와 價值觀 간의 관계를 인정하였으며 Dewey³⁾는 價值觀이 인간의 欲求와 環境에 따라 變하며, 또한 變하여야 한다고 하여 欲求나 環境이 價值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衣服행동의 선택준거가 되는 衣服價值觀에 欲求나 環境의 어떤 變因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本研究에서는 成人女性을 대상으로 그들의 人口統計學의 변인이 基本欲求에 미치는 영향과 그들의 衣服행동에서 선택 준거가 되는 8가지 衣服 價值觀에 人口統計學의 변인과 欲求변인중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經路分析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II. 理論的 背景

1. 衣服價值觀

개인의 성격속에 내면화되는 文化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나누어 보면 觀念 혹은信念의 체계, 表現的 象徵의 체계, 價值指向의 체계로 나눌 수 있다. 이중 價值指向의 체계는 評價의 關心 혹은 기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文化체계로서 개인이 어떤 選擇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선택하느냐 하는 價值判斷의 문제에 관한 參照體制이며 評價基準이 된다⁴⁾. Dewey⁵⁾도 인간이 그의 행위의 타당성을 겸증받아야 되는데 이 겸증의 원리가 評價활동이라고 하여 評價 활동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를 개인의 價值觀 또는 倫理觀으로 규정하고 있다.

Kluckhorn과 Strodtbeck⁶⁾는 價值觀이란 부단히 계속되는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흐름에 대해 질서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복합적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유형을 가진 원칙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Perry⁷⁾는 한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것이든 그 관심의 대상이 될때 그 대상에 대해 價值를 부여하게 되며 관심의 변화는 價值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다.

Williams⁸⁾는 두가지 이상의 선택가능한 대상이 있을 때 어느것을 선택하느냐를 관찰하므로서, 그리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관찰하므로서 가치를 추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價值란 개인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價值때문에 선택 가능한 많은 행위중에서 특정대상이나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고 본다.

Ryan⁹⁾도 價值觀이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動因이 되며 衣服 선택 행동에서도 가치가 작용한다고 가정하여 價值觀이 衣服선택이나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개인이 衣服을 선택하고 작용하는데 있어 衣服의 어떤 측면을 중시하는가는個人에 따라서 다르다.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個人을 지배하는 價值觀의 차이에

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offman¹⁰⁾은 여성들이 사용한 衣服의 60%가 美的인 측면을 반영한다고 밝혀 衣服에서 美的重要性를 강조하였으며 Roland¹¹⁾도 衣服에 대한 태도에서 5개 價值中 美的 的 價值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Lapitsky¹²⁾는 一般的 的 價值觀을 衣服 價值觀과 관련시켜 연구한 결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女性들이 衣服에서 중시하는 價值觀은 異美的 的 經濟的 的 價值觀이었으며 Mcjimsey¹³⁾나 Kefgen¹⁴⁾도 같은 견해를 보였다. 李仁子¹⁵⁾는 中·上流層 主婦들은 經濟的이고 편안한 옷을 좋아하는 반면에 권위적이고 정치적인 의복은 제일 싫어한다고 하였다. 또한 金光經¹⁶⁾도 어머니집단은 女大生집단보다 經濟的 的 價值觀이 높고 女大生은 異美的 · 政治的 的 價值觀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李善宰¹⁷⁾는 한국 성인여성의 일반적 가치관은 宗教的 的 價值觀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오늘날 成人女性들이 衣服에 두는 價值기준은 대체로 有用한 것을 추구하여 經濟性과 편안함의 實用的인 측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15,18)}.

2. 欲求와 衣服價值觀

欲求란 뇌속에 존재하는 힘을 나타내는 구성개념으로 현존하는 불만스러운 상태를 바꿀수 있도록 知覺, 統覺, 意慾 行爲 등을 어떤 특수한 방향으로 체계화하는 힘이다¹⁹⁾. Maslow²⁰⁾는 人間의 欲求를 5階層으로 분류하고 이들 欲求가 행동 동기로 나타날때 欲求들은 대체로 強度와 重要度에 따라서 位階 단계로 배열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欲求들이 행동을 유발하는 유일한 동기는 아니며 어떤 행동도 동시에 여러 욕구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Tolman²¹⁾에 의하면 行動은 環境的인 자극과 生理的 상태에 의해서 유발되어 有機體內의 中介變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즉 일정한 때에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環境的 實體인 刺激과 衝動(drive)상태가 欲求만족을 위한 대상을 추구하는 힘을 갖게 되고 다음에 信念-價値의 類型을 통함으로서 특정한 目的對象을 선택하여 이에 따라 心理的인 직접적 행동의 영역이 설정되고 이 영역속에서 目的對象까지의 단계적인 轉位과정을 거쳐서 外顯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Rogers²²⁾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인간이 環境을 지각하면서 그 環境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欲求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Murray도 欲求가 어떤 환경속에서 작용한다는 Rogers의 견해에 동조하였다. 또한

Rogers²³⁾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승인되고자 하는 欲求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동일한 欲求들은 지니고 있어 그들의 가치는 고도의 共通性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Lapitsky¹²⁾에 의해 부분적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각 價值 유형은 衣服에 대한 특정형태의 관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個人的 理論的, 宗教的, 社會的 價值 등은 그들 價值지향 때문에 衣服선택 행동에서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欲求와 價值觀의 관계를 인정하였다. Schlag²⁴⁾는 美的 的 價值가 變化 欲求와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Creekmore¹¹⁾는 女大生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社會的 價值는 所屬과 愛情, 安全, 生理的 欲求, 政治的 價值는 自尊의 欲求와 正的 相關이 있었으며, 宗教的 價值는 安全欲求, 探求的 價值는 行動, 認知욕구와 肯定的인 관계가 있었다. 또한 經濟的, 感覺的 가치는 自尊의 欲求와 正的 相關을, 異美的 的 價值는 安全欲求와 負的 상관을 보인다고 하여 欲求와 價值觀 간의 관계를 밝혔다. Moothat²⁵⁾는 女大生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적은 사람은 자기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다고 하였다.

Darden²⁶⁾도 衣服의 異美性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自我概念이 높고 衣服의 貞淑性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자아개념이 약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소심한 경향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Humphrey, Klassen, Creekmore²⁷⁾는 자기존중감이 높은 여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衣服에 흥미가 높아 衣服을 통해 實驗性을 즐긴다고 하였으며, Drake와 Ford²⁸⁾의 연구에서도 자신을 위해 의복을 입는 사람은 自己受容性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여 Humphrey 등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3. 家庭環境變因과 衣服價值觀

衣服착용이 신체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을 주지의 사실이다. 衣服은 우리에게 個人的 연령이나 性, 職業, 社會經濟的인 地位, 役割, 價值觀, 態度, 그리고 性格을 표현해 주는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⁹⁾.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衣服을 선택하고 착용하는데 있어 개인의 연령이나 社會經濟적 배경 등 環境의인 측면을 알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衣服價值觀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Hurlock²⁹⁾은 衣服이 자기

의 社會的 地位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Latzke³⁰⁾, Rosencraze³¹⁾도 年令, 職業, 收入, 教育수준등의 環境변인이 衣服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강혜원³²⁾은 年令이 높을수록 衣服에서 貞淑性을 중시한다고 하였으며 Tate와 Glisson³³⁾은 여성들이 젊을때 보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유행에 관심은 적어지고, 질이 좋고 좀 더 오래 입을수 있는 옷을 구입한다고 하여 經濟的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李仁子¹⁵⁾는 年令에 따라서 衣服의 價值는 젊은世代일수록 美的價値가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經濟의이고 感覺의인 價値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學歷이 높을수록 審美的 價値를 중시하며^{17,34)} 宗教의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두는 價値는 낮다고 하였다³⁴⁾. 그러나 李善宰¹³⁾는 학력이 높을수록 宗教의 價値觀은 높다고 하였다. 또한 職業여성과 非職業여성의 衣服에 대한 價値觀은 직업여성이 비직업 여성보다 社會的 價値를 더 중시한다¹⁶⁾고 하였다. Drake와 Grims³⁵⁾는 衣服購買時 30代와 40代여성 그리고 社會經濟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label을 더 찾고 label의 내용 즉 세탁안내, 섬유함량, 다클질, 온도, 색상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원한다고 하여 衣服의 理論的 측면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III. 假說 및 用語定義

1. 假 說

假說 I. 成人女性의 人口統計學의 變因은 基本欲求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假說 II. 成人女性의 人口統計學의 變因, 基本欲求는 衣服價值觀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假說 II-1) 人口統計學의 變因은 衣服價值觀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假說 II-2) 基本欲求는 衣服價值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用語定義

1) 基本欲求

Maslow의 欲求分類體系를 기초로 生理的욕구, 安全의 욕구, 所屬感과 애정의 욕구, 自己尊重感의 욕구, 自我實現의 욕구로 분류되고 본 연구에서는 欲求진단척도의 下位尺度 득점으로서 이들 欲求가 측정된다.

2) 衣服價值觀

個人의 衣服價值觀은 理論的, 審美的, 經濟的, 政治的, 社會的, 感覺的, 宗教的, 探求의 가치의 8가지 가치관으로 분류되고 Creekmore의 衣服가치관 尺度의 8가지 下位尺度 득점으로서 이들 가치관이 측정된다.

IV. 研究方法

1. 調查對象

本 研究의 調查對象은 大邱와 晋州市內에 거주하는 中·上流層의 여성으로서 基本生計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는 수입(26만원~70만원이상)을 가진 450명의 성인여성으로 하였다. 1986년 11월~12월 사이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結果처리 과정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358명의 자료만을 分析 대상으로 하였다.

2. 測定道具

1) 欲求診斷尺度

個人의 基本欲求를 측정하는 欲求尺度는 Maslow의 欲求분류를 기초로 生理的욕구, 安全욕구, 所屬感과 愛情의 욕구, 自己尊重의 욕구 및 自我實現의 욕구를 진단하기 위한 3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 단계로 평가되었다. 이尺度는 先行연구¹¹⁾를 참고로하여 本 研究者가 우리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尺度의 타당도를 밝히기 위하여 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生理的, 安全, 所屬感과 愛情, 自己존중, 自我實現욕구 尺度별로 각기 문항과 척도점수와의 相關係數(r)를 산출하였으며 이尺度의 信賴度를 밝히기 위하여 1주일 간격으로 실시한 檢查—再 檢查의 信賴度係數는 각각 665, 779, 719, 445, 652로 나타났다.

2) 衣服價值觀尺度

이尺度는 8가지 衣服價值의 相對的 強度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작성된 Creekmore³⁶⁾의 “Measure of Eight Clothing” Part I만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 人口統計學의 變因

조사대상자에 대한 개인의 人口統計學의 變因으로 年令, 結婚與否, 學歷, 收入, 職業有無를 조사하였다. 그 중 重多回歸分析을 위해 結婚與否와 職業有無 2개의 명목변인을 가변인으로 전환하였다.

3. 資料分析

資料分析은 우선 因果模型설정을 위해 人口統計學的 변인과 欲求변인들 그리고 價值觀 변인들간의 상관을 Pearson의 적률相關係數 <表 1>로 구하였으며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들만 선별하여 假說의인 因果關係를 설정한 후 重多回歸分析을 하였다. 그 분석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 졌다. 첫단계는 人口統計學的변인들간의 因果관계를 도출하는 것이고, 둘째단계는 人口統計學的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각 欲求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세째단계는 人口統計學的변인과 欲求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의복價值觀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각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각 價值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이므로 8개의 經路模型이 설정된다. 그러나 分析결과 探求의 價值觀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經路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모두 7개 價值觀의 經路model만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V. 結果 및 論議

1. 各 變因間의 相關關係分析

表 1은 本 研究에 포함된 衣服價值觀, 欲求, 그리고 人口統計學的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人口統計學的 변인들은 欲求 및 價值觀 변인과 부분적으로 상관을 나타내어 人口統計學的변인이 欲求나 衣服價值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欲求와 衣服價值觀과의 상관을 보면 욕구하위변인중 安全의 욕구는 審美的 가치관과 負의, 社會의 가치와는 正의 상관을 보이고 所屬 및 愛情의 욕구와 社會의 가치와 正의, 탐구적 가치와 負의 상관을 보였다. 또한 自己尊重욕구는 理論的, 經濟的, 社會的, 感覺的, 宗教의 가치관과 負의인 상관을, 審美的, 政治的, 探求의 가치관과는 正의인 상관을 보여 自己尊重의 욕구가 모든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個人的欲求가 衣服價值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各 價值觀의 經路分析

人口統計學的변인들과 欲求변인들이 각 價值觀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 및 經路관계를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理論的 價值觀

衣服 가치관에서 理論的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經路分析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理論的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전에 매개변인인 欲求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토해 보면 年令은 結婚與否에 영향 ($\beta = -.719$)을 주고, 結婚與否는 欲求하위변인中 自己尊重욕구와 自我實現욕구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年令이 낮은 층의 미혼여성일수록 自己尊重욕구 ($\beta = .147$) 및 自我實現욕구 ($\beta = .100$)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理論的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欲求변인으로 自己尊重욕구 ($p < .01$)와 自我實現욕구 ($p < .05$)이다. 自己尊重욕구는 負의 영향 ($\beta = -.143$)을 미쳐 自己尊重욕구가 낮고自我實現욕구가 높은 여성 일수록 의복에서 理論的 측면을 중시하였다. 結婚여부는 理論的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나 自己尊重욕구와 自我實現욕구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自己完成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한 미혼여성은 의복이 이용되고 만족을 주는 이유를 아는데 높은 가치를 두지만 존중 받으려는 욕구가 강한 여성은 의복의 理論的인 측면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自己尊重욕구가 낮은 기혼여성은 理論的 가치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²⁵⁾를 지지해 준다.

이상에서 가설 I, 가설 II-2는 부분적으로 공정되었다.

2. 審美的 價值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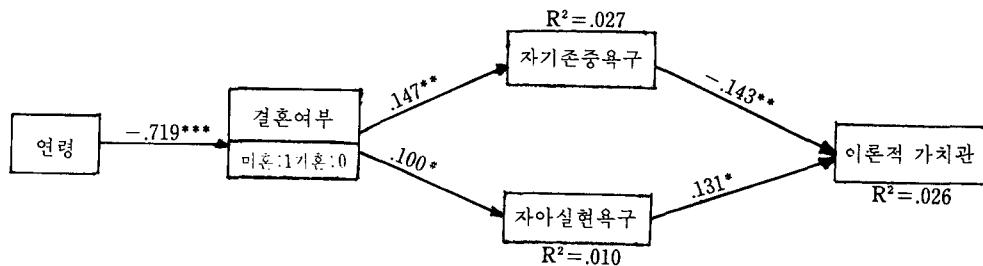
審美的 價值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經路分析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欲求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人口統計學的변인中 結婚與否와 學歷이며 年令은 이를 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欲求하위변인中 自己尊重욕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結婚與否 ($p < .01$)이며, 學歷 ($p < .01$)은 安全욕구에 負의 영향 ($\beta = -.15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년령층일수록 安全욕구는 낮은 경향이었다.

審美的 價值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學歷 ($p < .01$), 安全욕구 ($p < .05$), 自己尊重욕구 ($p <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學歷이 높을수록 美的 가치가 높은 것

<表 1> 各變因間의相關係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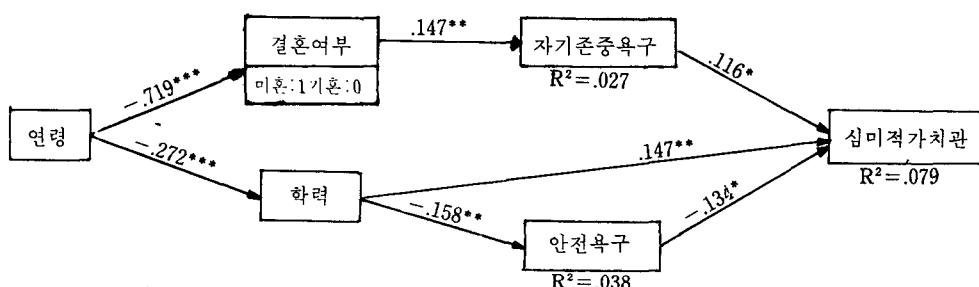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생리적욕구	1.000																	
(2) 안전의욕구	.097*	1.000																
(3) 소속의욕구	-.036	.100*	1.000															
(4) 자기존중욕구	-.065	.082	.084	1.000														
(5) 자아실현욕구	.013	.092*	.104*	.318***	1.000													
(6) 이론적가치관	.044	.003	.009	-.101*	.086	1.000												
(7) 심미적가치관	-.004	-.157**	-.077	.112*	.044	-.257	1.000											
(8) 경제적가치관	.050	-.051	.005	-.163*	-.047	-.068	-.266***	1.000										
(9) 정치적가치관	-.026	-.043	-.069	.238*	-.034	-.287	.317***	-.424	1.000									
(10) 사회적가치관	-.010	.094	.288***	-.093*	.037	.086	-.203	-.031	-.233	1.000								
(11) 탐구적가치관	-.003	-.026	-.137**	.090*	.094	-.103*	.058	-.256***	.195***	-.322	1.000							
(12) 감각적가치관	.064	-.006	-.037	-.223	-.058	.136*	-.092*	.125	-.361	-.052	-.265***	1.000						
(13) 종교적가치관	.120	.052	-.015	-.146*	-.015	.314***	-.349***	.123	-.314	-.147	-.328	.100*						
(14) 년 령	.038	.048	.007	-.121*	-.084	-.026	-.155	.043	-.058	-.029	-.058	.103*	.073					
(15) 학 력	-.174	-.179*	-.027	-.057	.048	-.056	.192	-.069	.128	-.058	-.024	.007	-.152	-.272	1.000			
(16) 수 입	-.065	-.121*	-.016	-.095*	-.085	-.023	.048	-.039	.081	-.090*	.057	.100*	-.122*	.339***	.280	1.000		
(17) 결 혼 여 부	-.025	-.057	-.004	.162	.100*	-.015	.151	-.018	-.016	.002	.010	-.054	-.073	.718***	.220	-.392	1.000	
(18) 적 업 유 무	.005	.003	-.043	.043	-.053	.018	.041	.062	-.029	-.002	-.030	.015	.012	-.445	.195***	-.170	.545***	1.000
Mean	23.335	16.212	18.673	17.263	20.159	22.272	21.184	24.406	13.436	19.735	22.927	23.905	21.352					
S.D.	2.564	2.940	2.687	3.634	4.153	3.824	4.451	4.592	5.385	4.039	4.641	3.936	4.345					

*P<.05 **P<.01 ***P<.001



*P<.10 *P<.05 **P<.01 ***P<.001

그림 1. 理論的 價值觀의 經路分析



*P<.05 **P<.01 ***P<.001

그림 2. 奢美的 價值觀의 經路分析

($\beta = .147$)으로 나타났으며, 學歷의 直接적인 영향은 安全욕구를 거치는 간접적인 영향 ($0.158 \times 0.14 = 0.020$)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복의 奢美的을 중시한다는 선행연구^{17,34)}와 일치한다. 다음 安全의 욕구는 負의 영향 ($\beta = -.134$)을 미쳐 安全욕구가 높은 여성일수록 의복의 美的인 측면에는 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安全욕구와 奢美的 價值觀 간의 負의 相關을 밝힌 Creekmore¹¹⁾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를 보게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여서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衣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경향은 학력이 낮은 여성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自己尊重욕구가 높은 여성일수록 衣服의 奢美的의 측면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 ($\beta = .116$)으로 이는 자기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은 사람일수록 아름다운 옷에 대한 평가나 美的자극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선행연구^{25,26)}를 지지해 준다.

따라서 奢美的 價值觀을 결정하는 것은 年齡이나 結婚與否 등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과 學歷 그리고 安全

욕구나 自己尊重욕구와 같은 基本欲求가 直接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收入이나 본인의 職業有無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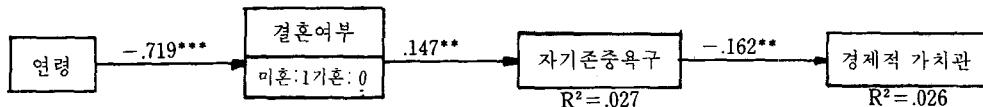
이상에서 가설 I, 가설 II-1, 가설 II-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3. 經濟的 價值觀

衣服價値觀에서 經濟的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變因들의 經路分析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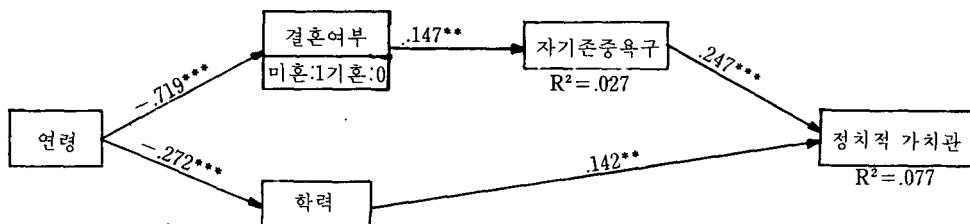
欲求하위변인중 自己尊重욕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結婚여부 ($p < .01$)이다.

經濟的價値觀에 直接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自己尊重욕구 ($p < .01$)로 負의 여향 ($\beta = -.162$)을 미쳐 自己尊重욕구가 낮은 사람일수록 衣服의 經濟的인 측면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었다. 이는 自己尊重욕구와 經濟的 가치관의 正의 相關을 밝힌 선행연구¹¹⁾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年令層이 낮은 미혼여성은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며 의복선택시 돈, 시간, 에너지 등을 절약하는 경제적인 측면에 가치를 두지 않는 반



P<.01 *P<.001

그림 3. 經濟的 價值觀의 經路分析



P<.01 *P<.001

그림 4. 政治的 價值觀의 經路分析

면 기혼여성은 경제적인 측면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어
선행연구¹⁵⁾³³⁾를 간접으로 지지해 준다.

따라서 가설 I, 가설 II-2만 부분적으로 궁정되었다.

4. 政治的 價值觀

衣服價值觀에서 政治的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의 經路分析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人口統計學의 變因이 基本欲求의 下位變인인 自己尊重
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異美的 價值觀과 동일하다.

衣服의 政治的 價值觀에 영향을 주는 變因은 自己尊重
욕구 ($p < .001$) 와 學歷 ($p < .01$) 으로 나타났다. 존중
받으려는 欲求가 강하고 ($\beta = .247$), 學歷이 높은 여성
일수록 ($\beta = .142$) 타인에게 존경받고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衣服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젊은
미혼여성일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衣服의
政治的 價值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自己尊
重욕구와 學歷이고 年令 및 結婚與否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가설 I, 가설 II-1, 가
설 II-2는 부분적으로 궁정되었다.

5. 社會的 價值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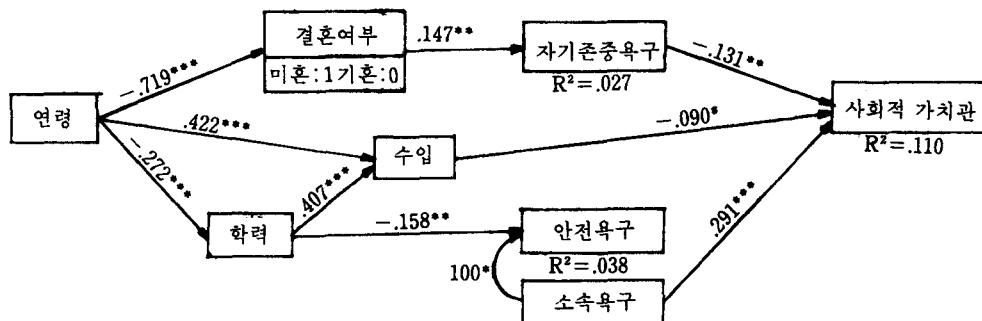
衣服價值觀에서 社會的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의 經路分析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社會的 價值觀에서 人口統計學의 변인인 結婚與否, 學

歷, 收入은 年令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특
히 年令은 收入에 직접적인 영향 ($\beta = .422$) 을 출뿐만 아
니라 學歷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 ($0.272 \times 0.407 =$
 0.111) 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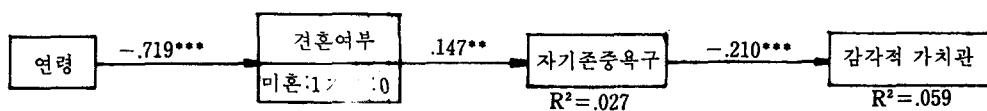
매개변인인 欲求변인에 미치는 人口統計學의 변인을
검토해 보면 欲求하위변인中 安全욕구와 自己尊重욕구
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異美的 價值觀의 경우와 동일하
므로 異美的 價值觀의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社會的 價值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所屬
과 愛情의 욕구 ($p < .001$), 自己尊重의 욕구 ($p < .01$)
그리고 收入 ($p < .10$) 의順으로 나타났다. 즉 所屬의 욕
구가 높고 ($\beta = .291$), 自己尊重의 욕구가 낮을수록
($\beta = -.131$), 그리고 收入수준이 낮을수록 ($\beta = -.090$) 衣服에서 社會的 價值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收入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衣服에 많은支出을 하므로
서 他人을 의식하기보다 자신의個性을 추구하는데 가치
를 둔다고 볼 수 있다. 결혼여부는 自己尊重욕구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自尊욕구가 높은 미혼여성일수록
社會的 價值觀은 낮은 경향이었다. 이는 미혼여성의 경
우 존중 받으려는 욕구가 높기때문에 의복선택에서 개성
표현을 중시하는 반면에 기혼여성은 대인관계를 중시하
는데 가치를 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學歷은 安全욕구
에 負의 영향 ($\beta = -.158$) 을 주고 安全욕구는 .05수준에
서 正의 관계 ($\beta = .100$) 을 보여주고 있는 所屬의 욕구를



*P<.10 *P<.05 **P<.01 ***P<.001

그림 5. 社會的 價值觀의 經路分析



P<.01 *P<.001

그림 6. 感覺的 價值觀의 經路分析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社會的 가치관과 安全 및 所屬욕구와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 연구¹¹⁾의 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으로 學歷이 낮은 여성은 불안감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와 自身이 속해있는 집단에 소속하려는 욕구가 높기 때문에 타인을 의식하게 되어 衣服의 社會的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I, 가설II-1, 가설II-2는 부분적으로 공정되었다.

6. 感覺的 價值觀

衣服價值觀에서 感覺的 측면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經路分析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感覺的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自己尊重욕구 ($p < .001$)로 負의 영향 ($\beta = -.210$)을 미쳐 自己尊重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의복의 감각적인 측면에는 가치를 두지 않는 경향이었다. 이는 女大生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¹¹⁾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年令, 결혼여부는 자기존중욕구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自己존중욕구가 낮은 기혼여성일수록 衣服 선택에서 편안함을 중시하는데 가치를 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이 젊을 때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은 적어지고 실용적이며 편안한 옷을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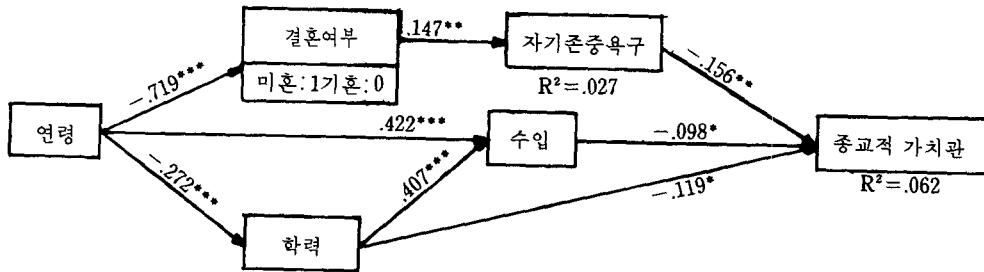
한다는 선행연구^{15,33)}을 지지해 준다. 따라서 가설 I과 가설II-2만 부분적으로 공정되었다.

7. 宗教的 價值觀

衣服價值觀에서 宗教의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經路分析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매개변인인 欲求변인에 미치는 환경변인을 검토해 보면 結婚여부만이 自己尊重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宗敎의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自己尊重욕구 ($p < .01$)와 學歷 ($p < .05$) 그리고 收入 ($p < .10$)의 順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은 宗敎의 가치관에 負의 영향을 미쳐 自己尊重의 욕구가 낮고 ($\beta = -.156$), 教育수준이 낮을수록 ($\beta = -.119$), 그리고 收入수준이 낮을수록 ($\beta = -.098$) 의복에서 宗敎의 가치관은 높게 나타났다. 특히 學歷수준은 宗敎의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 ($\beta = -.119$)을 줄 뿐만 아니라 收入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 ($.407 \times 0.098 = 0.03998$)을 미치고 있으며 결혼여부는 自己尊重욕구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學歷, 收入이 낮고, 自己尊重욕구가 낮은 기혼여성일수록 衣服을 통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정숙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측면에 가치를



*P<.10 *P<.05 **P<.01 ***P<.001

그림 7. 宗教的 價值觀의 經路分析

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정숙성을 중시하며³²⁾ 의복의 정숙성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자아개념이 약하고 소심한 경향이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²⁶⁾를 지지해 준다. 이상에서 가설 I, 가설 II-1, 가설 II-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V. 結論

本研究는 成人女性을 대상으로하여 그들의 人口統計學의 變因과 基本欲求가 衣服의 선택준거가 되는 衣服價值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人口統計學의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보면 年令은 結婚與否, 學歷, 收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年令은 探求의 가치를 제외한 7가지 가치관에서 結婚與否에 審美的, 政治的 가치관에서 學歷에, 그리고 社會的, 宗教的 가치관에서 學歷과 收入에 영향을 미쳤다.

2. 基本欲求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人口統計學의 변인中 結婚與否, 學歷으로 나타났다.

結婚與否는 理論的 가치관에서 自我實現욕구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探求의 가치를 제외한 7가지 가치관에서 모두 欲求下位변인中 自己尊重욕구에 영향을 미쳐 未婚여성이 既婚여성보다 自己尊重욕구가 높았다. 이는 年令이 自己尊重욕구 및 自我實現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젊은 년령층 일수록 自己尊重 및 自我實現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다.

學歷은 欲求下位변인中 安全욕구에 負의 영향을 미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安全욕구는 낮고 이러한 경향은 審美的 가치관과 社會的 가치관을 중시할때 나타난다.

3. 衣服價值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人口

統計學의 변인으로는 學歷과 收入이며 欲求변인으로는 安全, 所屬感과 愛情, 自己尊重, 自我實現욕구로 나타났다.

人口統計學의 변인中 學歷은 審美的, 政治的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收入수준은 社會的, 宗教의 가치관에 負의 영향을 주었다. 즉 學歷이 높을수록 의복의 審美的, 政治的 가치는 높고 宗教의 가치는 낮았으며, 收入이 많을수록 社會的, 宗教의 가치는 낮았다. 특히 年令은 다른 人口統計學의 변인을, 結婚與否는 欲求변인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衣服에 대한 가치관은 젊은층의 미혼여성과 기혼여성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職業유무는 어떤 경로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欲求下位변인中 安全의 욕구는 審美的 가치관에 負의 영향을 미치고 安全의 욕구와 正의 상관을 보이는 所屬感과 愛情의 욕구는 社會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 自己尊重의 욕구는 審美的, 政治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고 理論的, 經濟的, 社會的, 宗教의 가치관에 負의 영향을 미쳤으며, 自我實現의 욕구는 理論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다. 즉, 安全의 욕구가 낮을수록 의복의 審美的 가치관이 높고 所屬感과 愛情의 욕구가 높을수록 社會의 가치관이 높았다. 또한 自己尊重의 욕구가 높을수록 審美的, 政治의 가치관은 높고 理論的, 經濟的, 社會的, 宗教의 가치관이 낮았으며 自我實現의 욕구가 높을수록 理論의 가치관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基本欲求가 衣服價值觀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欲求와 價值觀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1,24)}를 뒷받침해준다.

이상에서 個人的 基本欲求와 人口統計學의 변인이 의복선택의 준거가 되는 탐구적 가치를 제외한 7가지 衣服

價值觀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價值觀이 인간의 欲求와 環境에 따라 變하며 變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

그러나 本研究에서 7개의 가치관에 미치는 모든 변인들의 설명력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므로 개인의 衣服價值觀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인들 즉, 本研究에 포함되지 않는 人口統計學的변인이나 欲求 그리고 성격등의 기타 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가치관에는 다른 가치관의 영향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후속연구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규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参考文獻

- 1) Creekmore, A.M., Clothing Behavior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3)
- 2) Sumner, E.D., On the Relation of Manifest Needs to Personal Values. A Factor Analytic study Involving R and Q Techniqu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Wayne State University, (1957)
- 3) Kohlmann, E.L., Personal Values what are They ?, *J. of Home Economics* 54, 819~822 (1962)
- 4) Parsons T and Shils E.A., Values, Motives and Systems of Action in Parsons T, and E.A.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2 (N.Y: Harper and Row) 247~248 (1962)
- 5) 閔炳謂, “人間의 諸存在” 韓國人の 價值觀, 韓國教育開發院, 23, (1977)
- 6) Kluckhohn, F.R. & Strodtbeck, F.L., Variation in Value Orientations, N.Y: Row, Peterson and Co., 4, (1961)
- 7) Perry R.B., Realism of Valu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1~12, (1954)
- 8) Williams, R.M., American Society, N.Y: Alfred & Knopf, 374~376, (1952)
- 9)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37, 55, 99, (1966)
- 10) Hoffman, A, Clothing Behavior Factors for specified Group of Woman Related to Aesthetic Sensitivity and Certain Socio-economic and Psychological Background Factors, Unpublished Doctor's Dissertation, Clothing and Textiles Department,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56)
- 11) Roland, R.H.,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Determining Women's Attitudes toward Dresses of a Specified Type, Unpublished Master's thesis, Ohio State Univ., (1958)
- 12) Lapitsky, M, Clothing Value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Social Security and Insecurity, Unpublished Doctor's Dissertation,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The Pennsylvania State Univ., (1961)
- 13) McJimsey, H.T.,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2nd ed., Ames: Iowa state Univ, Press, 4, (1973)
- 14) Kefgen, M & Specht P.T.,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Y: Mcmillan Publishing Co., 35~38(1976)
- 15) 李仁子, 主婦들의 衣裳價值觀에 관한 研究. 전대 연구 보고 제2집, 63~94, (1978)
- 16) 金光經, 價值觀과 衣服의 滿足度, 誘示性, 流行 및 韓服에 관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17(3), 53~62, (1982)
- 17) 李善宰, 韓國女性의 衣服選擇要因과 價值觀과의 相關性에 대한 研究, 亞細亞研究所, 114~123, (1983)
- 18) Horn, M.J.,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85~86, (1975)
- 19) Murray, H.A., Exploration in personality,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38)
- 20) Maslow, A.H.,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Y: Harper & Row., 59~64, (1970)
- 21) Tolman, E.C., “A Psychological Model” in Parsons and shill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Y: Harper & Row, 286, (1962)
- 22) Rogers, C.A., Client-Centered Therapy, N.Y., Houghton Mifflin Co., (1951)
- 23) 李相魯, 李寬鎔, 性格의 理論, 서울 : 中央邏輯出版社, 524, (1982)
- 24) Schlag, 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 Preference schedule and the Allport, Vernon, Lindzey study of Values: A Personality study of a Group of Medica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 of Washington, (1954)
- 25) Moothat, P.H., A Study in Change the Self-concept after a Negative a Evaluation of Clothing Appearance and the Relationship to the Individual's Interest in Cloth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ornell Univ., (1966)
- 26) Darden, L.A., Personality Correlates of Clothing

- Interest for a Group to Non-incarcerated and Incarcerated Women Ages 18-30,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 of North Carolina, (1975)
- 27) Humphery, C., Klassen, M., Creekmore, A.M.,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s, *J. of Home Economics*, 63, 246~250, (1971)
- 28) Drake, M.F. & Ford, I.M., Adolescent Clothing and Adjustment, *J. of Home Economics* 7, 283~291, (1979)
- 29) Hurlock, E.B., The Psychology of Dress, N.Y.: ARNO Press, 156, (1976)
- 30) Lazke, A., Hostetter, H.P., The wide world of clothing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03~146, (1968)
- 31) Rosencranze, M.L., Clothing Concept, N.Y: The Macmillan Co., 92~93, (1972)
- 32) 姜惠遠, 韓服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한 社會心理學的 衣服研究, 대한가정학회지, 17(3), 9~10, (1979)
- 33) Tate, M.T., & Glisson, O., Family Clothing, N.Y: John wiley and sons, Inc., 327~336, (1965)
- 34) 姜京子, 女性의 기본욕구와 衣服價值觀의 상관연구, 경상대학교논문집 26집, (1987)
- 35) 李仁子, 服飾社會心理學, 修學社, 290, (1984)
- 36) Creekmore, A.M.,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Michigan State University, 46~52, (1966)